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건축개념

Design Concept of the Seoul World Cup Stadium



글 / 柳春秀

(Ryu, Choon Soo)

이공건축 대표.

E-mail: beyonds20@hanmail.net

This Seoul World Cup Stadium is designed not only for FIFA's Football Game.

This stadium would be a very huge multi-use urban structure as a core of new developing west seoul.

Architect's basic design concept i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symbolic form and ultra modern high-tech.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FIFA가 정하는 수많은 건축적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기장은 FIFA 기준의 단순한 축구전용 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기장은 서부 서울 재개발의 핵이며, 쓰레기 더미 난지도를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서울의 새로운 OPEN SPACE의 구심점이다. 그러기에 이 월드컵 경기장은 롯데월드처럼 거대한 URBAN STRUCTURE로서 다목적 기능의 복합 건물이다.

64,000여 관중석 규모의 이 축구 전용구장에는 보조경기장과 100여개의 멤버십 방이 있으며 대회후에는 10여개의 중·대형 영화관, 4,500평 규모의 할인매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스포츠 시설은 물론 쇼핑 및 전문 식당가가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계획과정의 내 스케치 원본이 전시될 월드컵기념 박물관이 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턴키 현상 설계에 당선한

지 꼭 3년이 지났다.

현상기간 3개월을 전후한 치열한 경쟁의 애교소드는 훗날에 기록할 것이지만, 결국 어려운 「전투」를 통하여 나는 과분한 영광을 얻었다.

당선 발표 후 문화일보에 어떤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 설계안을 “상징성만 있을뿐 가능성이 없다.”고 혹평을 했다.

기념적 건축의 상징성은 기능성만큼 중요한 디자인 목표이기에 내 건축의 상징성을 평가해준 셈이다. 고맙기도 하지만, 기능성은 전문성이 없는 그 자가 논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안다.

나는 누차 글과 강연을 통해 주장해왔지만, 내 건축은 상징성이나 조형성보다는 평면과 단면도 우선으로 스케치 되는 공간의 질과 기능성을 강조한다.

설계 심사 과정에서 어느 교수가, “같은 조형으로 하되, 지붕재료만 테프론(TEFLON)유리 섬유막 대신 강판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는 제안



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국 뜻대로 “방패연 모양”의 거대한 막구조 지붕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지붕 구조계획은 물론 본인이 했지만, 계산과 실시설계는 미국의 GEIGER ENGINEERS가 했으며, 제작과 시공은 국내의 TIGER사가 맡았다. 거대한 막구조의 시공 기술이 국내에 정착된 계기가 되었음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지붕을 방패연에 비유한 것은 그 조형적 상징성 뿐 아니라 대나무 살 구조에 팽팽한 창호지의 빛을 투과하는 느낌이 마치 테프론(TEFLON)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붕은 방패연 일수도 있고 샷갓이기도 하며 부채 같기도 하다.

거대한 지붕의 날아갈 듯한 추녀의 곡선과 열주의 난간에서 한국적 이미지(IMAGE)가 느껴진다면 분명 이것은 내 의도의 성공인 셈이다.

올림픽 공원의 체조 경기장을 포함한 5개의 경기장의 기본설계나 부산의 사직 야구장, 말레이시아 KUCHING의 메인스타디움(MAIN STADIUM)과 실내경기장 등... 전에 설계한 경기장은 모두 둥근 원형이었기에 “경기장은 둥글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초기 스케치는 물론 원형에서 출발했었다.

그러나 직사각형 축구 필드와 나란한 직선 사각 스탠드가 얼마나 공기단축과 시공성이 좋은가는 대구, 부산 등 원형 경기장의 PC 콘크리트 스탠드 시공의 어려움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서울은 뒤늦게 착공했음에도 여유 있는 공정으로 마무리된 것은 스탠드의 직선화가 크게 공헌한 것이다.

당선 직후 이 경기장은 장마 때 침수 위험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글을 신동아에 실은 상대팀의 모함으로 설계자로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지만, 지난번 대홍수에서 「완벽한 수방대책」이라는 신문·방송의 찬사(?)를 받은 바, 이제 그 모든 공로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몫이다.

11월 11일 마침내 준공기념 행사를 갖는다니, 3

년 여 만에 설계와 시공이 마무리되는 한국적 병폐와 능력을 또한 증명한 셈이다.

내가 스스로 디자인 하고 시공한 VIP HALL은 국산 대리석의 수준 높은 질을 증명 하였으며, 작품속의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가까운 훗날, 이 경기장의 설계에서 완공까지의 숭한 비화들을 논픽션으로 쓸 예정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개념

■설계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지구
- 대지면적 : 216,712 M²(65556평)
 - * 변경전대지면적 : 154,380 M²(46700평)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층수 : 지하 1층, 지상 6층
- 구조 : 상부스탠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 하부스탠드 - 철골구조(지하층 R.C조)
 - 지붕 - 트러스 & TENSILE구조
- 주요 외장재 : 지붕 -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막 외벽 - PC마감
- 조경면적 : 43,480 M²

■주차대수 : 2,648대

- 일반관람객용 : 1,458대(장애인용 96대 포함)
- VIP/임원용 : 48대
- 미디어용 : 42대
- 방송단지 : 5,132,08 M²
- 선수/심판용 : 38대(버스 4대 포함)
- 안전요원용 : 119대, 수익시설용 : 280대
- 업무용 : 30대
- 기타용 : 223대



기획특집 - 서울월드컵경기장

■ 면적개요

- 건축면적 : 60,353.04 M²
- 연면적 : 155,774.61 M²
- 건폐율 : 27.85%
- 용적율 : 56.22%

- 신문기자석-1,098석

[데스크기자석-600석
일반기자석-498석

- 사진기자석-150석

- 읍저버석-390석

■ 대회후 주요시설

- 대형 할인점 : 18,100 M²
- SHOP : 4,200 M²
- 스포츠시설(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전문스포츠매장) : 12,600 M²
- 전문식당가 : 4,600 M²
- 복합상영관(극장10개관) : 10,500 M²

■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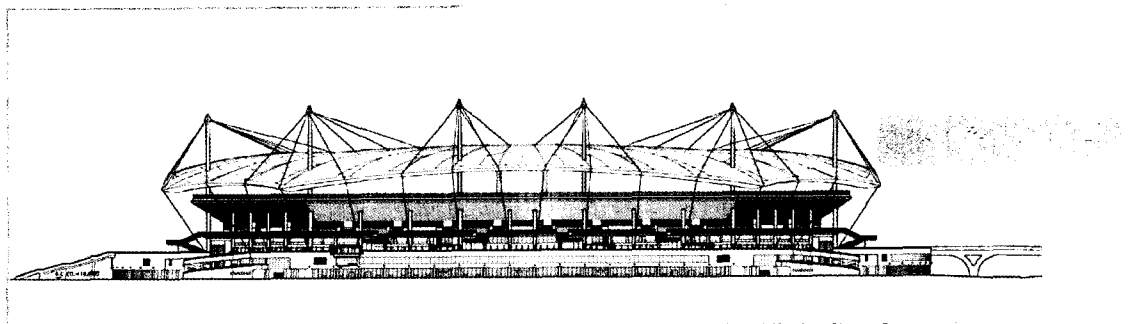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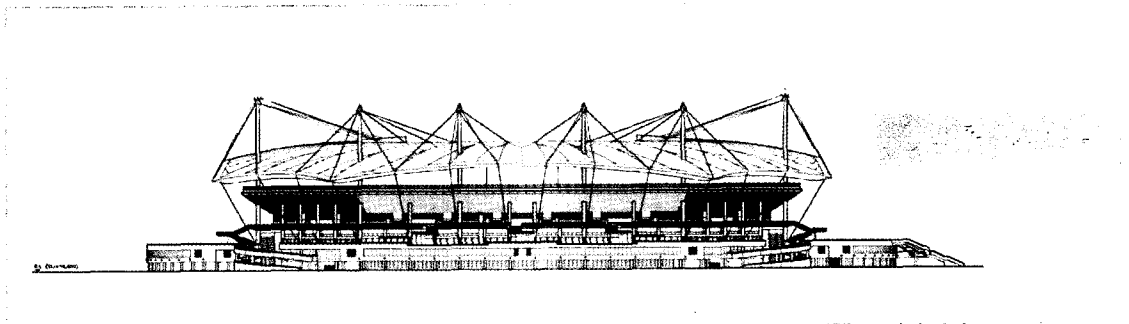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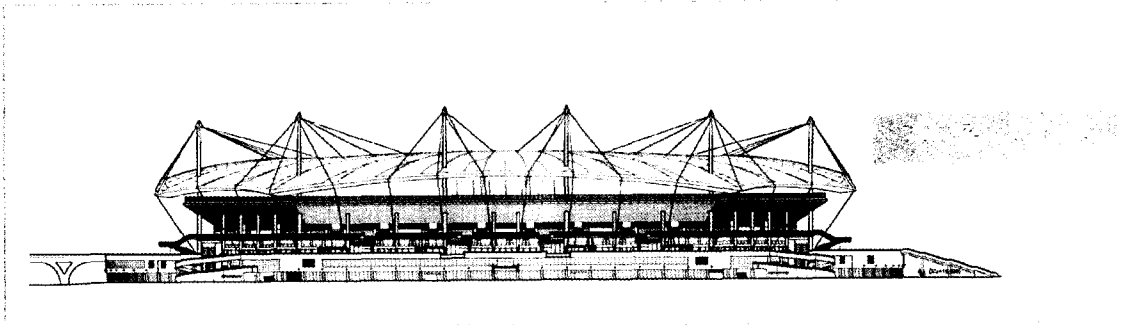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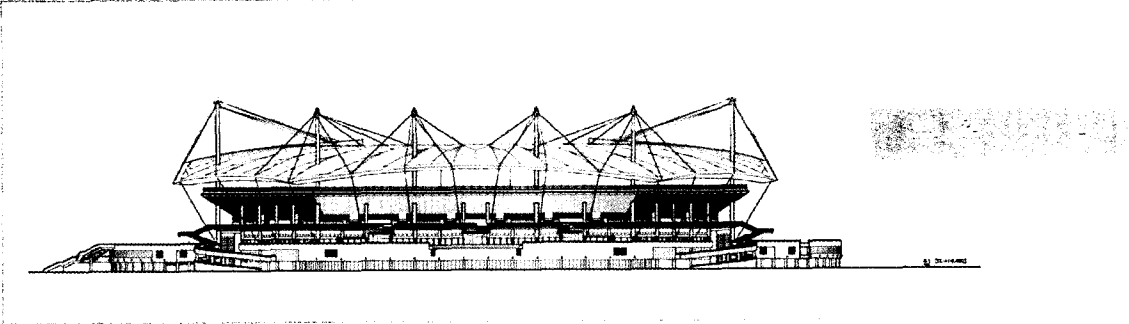
- 건축 : (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공
(주)비온드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주)정림건축
- 구조 : 하부구조 : (주)정일구조
지붕 : GEIGER ENGINEERS
- 설비 : (주)우원설비
- 전기 : (주)보우 T&C
- 통신 : (주)삼성SDS
- 소방 : (주)안국E&C
- 토목 : 서영기술단, (주)부림콘설턴트
- 조경 : 삼성에버랜드
- C.I : 메카디자인그룹

■ 수용인원 : 64,628석(월드컵시)

- 일반관람석 : 61,421석
 - 일반관람석 : 60,441석
 - 회원석 : 980석
 - 특별좌석 : 272석(휠체어석 : 142석)
- VIP석 : 816석
- 미디어석 : 2,391석
 - 중계방송석-753석(251유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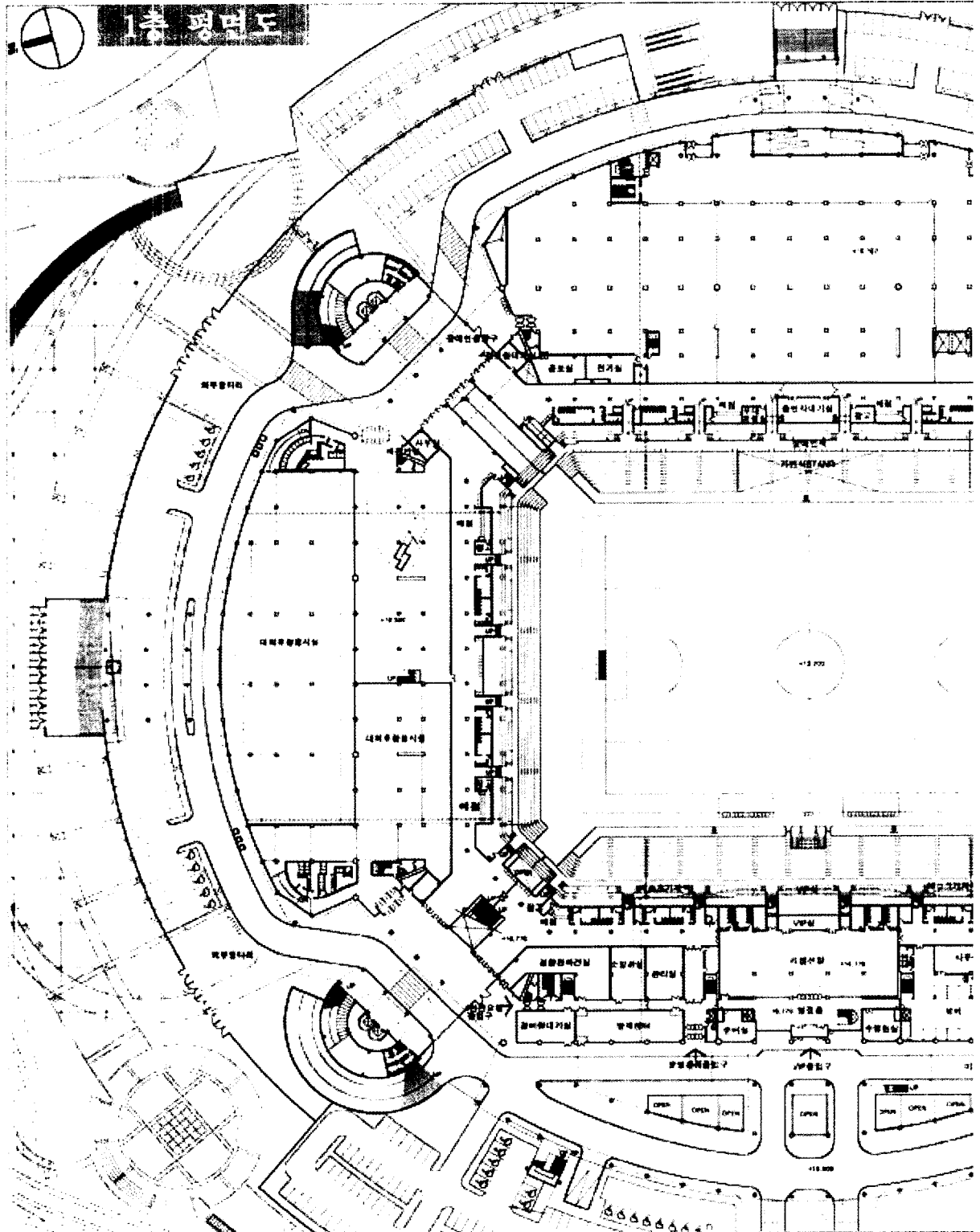
■ 시공 : 삼성엔지니어링 외 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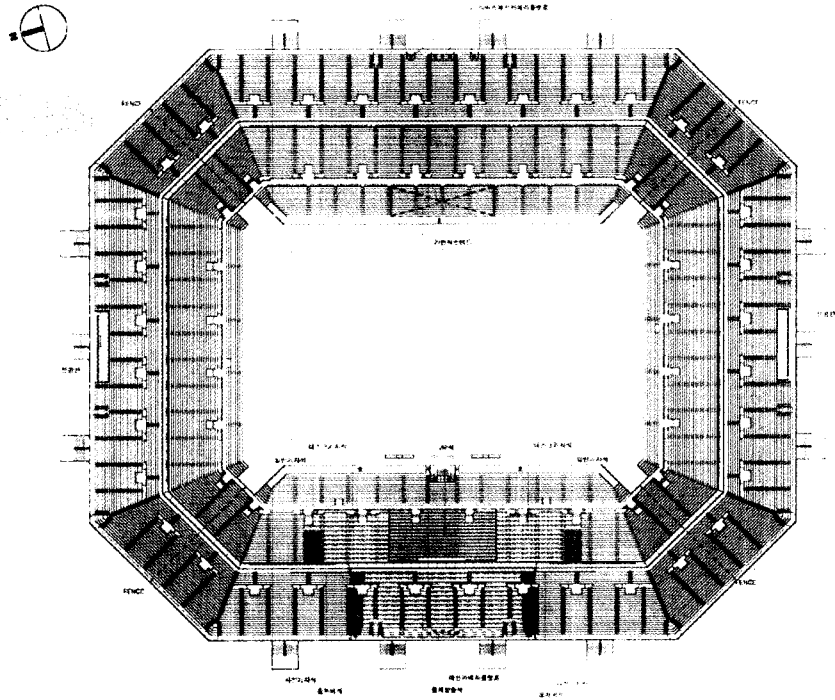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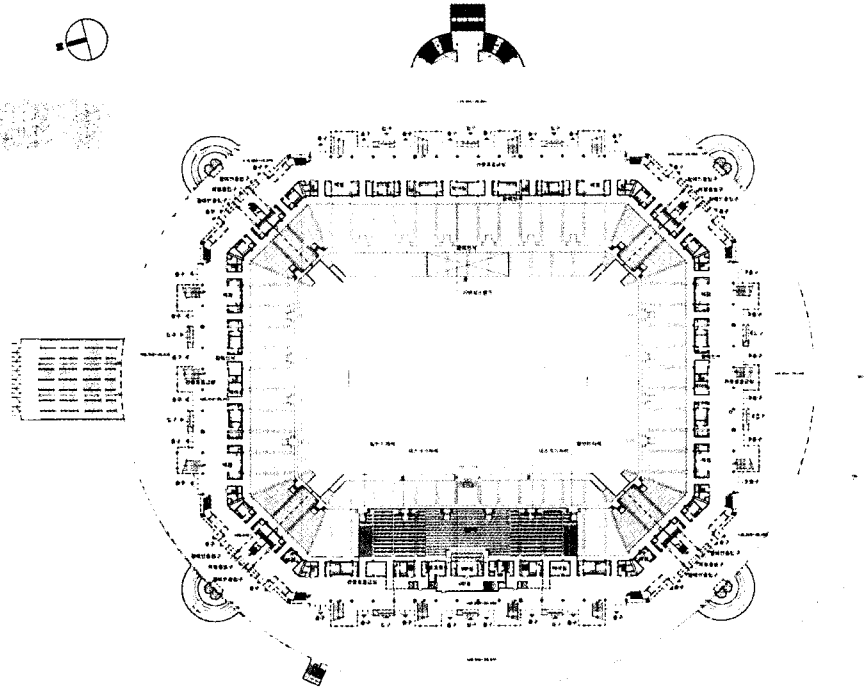


기획특집 - 서울월드컵경기장





기획특집 - 서울월드컵경기장



(원고 접수일 2001. 9. 20)